

2000年代의 産業醫學 方向設定 주춧돌 되기를 希望

순천향의대 교수 南澤昇



지난 1984年度부터 우리 大韓産業保健協會會長과 日本側 勞動科學研究所常勤理事이신 齊藤博士와의 오랜 親交와 接觸끝에 처음으로 지난해 5月初 서울에서 第1回 學術集談會가 열리게 되었다. 이로써今年度에는 日本에서 第2回 集談會가 開催되게 되어 지난 4月5일부터 6일까지 2日間に 걸쳐 韓日間에 産業醫學의 問題點들을 서로 發表하여 진지하게 討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第1回 集談會에는 日本側에서 日本産業衛生學會會長, 東京大學, 東地大學等の 教授를 비롯하여 10餘名の 重領들이 參加하여 진지한 論文發表가 있었고, 兩國間的 勤勞

者健康管理에 對한 問題點들을 숨김없이 이야기 하고 相互間的 취약점들을 改善하는데 努力하기로 하고 韓國側 代表委員에 曹圭常 博士, 幹事に 李昇漢 教授, 日本側 代表委員에 齊藤 博士, 幹事に 京都工場保健會 診療所長이신 乾修然 博士를 滿場一致로 選出하여 앞으로 每年 交代로 開催하기로 決定하였다.

今年度 開催地인 日本京都에서는 韓國側에서 約 40名, 日本側에서 約 50餘名이 參加하여 第1回 때 보다 盛大한 集談會가 되었고, 日本語, 韓國語, 英語로서 各者 發表하였다.

4月3日 午後 6時 30分부터 韓國集談會 運營委員들의 첫 모임이 뉴-京都 호텔에서 開催되어 앞으로의 日程과 Guest 로 泰國의 M. WONGPHANICH 女教授가 參加하는데 同意가 있었다. 이날의 前夜會는 盛大한 晚餐이 준비되었고 우리들로서는 昨年에 하지 못한 厚待를 받고 보니 未安한 感 금할 수 없었다.

日本 京都라면 日本歷史에 있어서 가장 오랜 都市中の 하나이며 日本 皇室의 傳統

을 이어온 古都이며, 二次世界大戰當時 唯一하게 原形이 保存된 都市이다. 이와같은 유서깊은 京都에서 第2回 韓日産業保健學術集談會가 開催된 것도 이 集談會의 發展에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첫 날의 開會式에 이어 日本中央 勞動災害防止協會 衛生檢査센터所長이신 錦 正和 博士의 日本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職業病對策에 관한 助成의 現況에 對한 發表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日本側에서 發表된 石綿關連疾患의 現況, 鉛中毒, MET-HYL 水銀中毒의 前驅症狀, 鹽化비닐의 職業病에 對한 政府의 對應策, 日本에 있어서의 頸肩腕障害, 腰痛症發生現況 등 多様な 發表가 있었다. 이와같은 問題點들에 對한 수용태세를 각추고 우리는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 勤勞者들의 健康問題에 대한 接近方法등에 대해서 考慮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나라 發表論文은 가톨릭醫大, 延世醫大, 高麗醫大, 全南醫大, 釜山醫大, 忠南醫大, 仁濟醫大등 각 분야에서 9편의 論文들이 發表되었는데 모두가 진지한 것으로 日本側에서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建設業의 産業災害에 對한 疫學的 研究 韓國에 있어서의 有機鹽素系 農藥의 汚染實態, 海外就業勤勞者의 健康問題 등에 대한 日本側 反應은 큰 것으로 앞으로의 發表論文은 産業醫學 第一線에서의 活動狀況에 관한 것이 韓日間의 學術集談會에 큰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저녁에는 100餘名の 초대 파티가 開催되었는 바 훌륭한 성찬이었으며 韓日間 代表人事에 이어 귀중한 時間을 할애한 우리나라 勞動部 申 昔奎 勤勞基準局長의 人事말씀이 있어 더욱 빛이 난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勞動行政 視察을 겸한 第2回 學術集談會는 政府의 局長이 參席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産業保健의 새 方向을 모색, 定立하게 되었다는 事實과 日本側이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勞動行政의 진취성에 對하여 큰 成果라고 믿는다.

둘째 날은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衛生管理制度와 活動에 대한 PANEL DISCUSSION으로서 日本側에서 全國勞動衛生團體 連合會技術專門委員長이신 戶田廣一 博士, 日本産業衛生學會 中小企業衛生問題研究會 會長이신 東田敏夫 博士, 우리나라側에서는 本의 아니게 本人이, 그리고 泰國에서는 M. WONGPHANICH 教授의 工場勞動者의 自主的 職業病 災害對策에 對한 討議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大韓産業保健協會의 組織과 活動狀況이 日本의 그와 유사한 團體들의 活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分野에서 아직도 日本을 따라 가기는 10年, 아니 30年이 뒤떨어졌다는 우리나라 現實에서 産業保健에 관한 한 日本을 앞지르고 있으며 研究分野에서도 日本과 손색없는 對等한 位置에서 장차 젊은 人材들이 뒤를 이어 받아 더욱 發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어졌다.

本意아니게 本人이 서투른 英語로 發表하고 보니 나 자신도 우스꽝스럽고 參加한 우리나라 會員들에게는 未安한 感 이루 말하기 곤란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무사히 지나고 보니 배짱 좋은 사나이로 낙인이 찍혔지만 이제와서 英語工夫를 하지 못한 나를 원망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을 계기로 英語工夫를 다시 始作해야 겠다는 마음이 간절할 따름이다.

끝으로 總會가 열리고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釜山地方을 中心으로 第3回 産業保健學

術集談會가 열리기로 決定되었으며 韓日産業保健學術集談會 會則도 通過되어 그야말로 和氣靄靄한 분위기 속에서 韓日兩國의 勤勞者健康問題를 論하고 나아가서 兩國의 國益發展에 이바지하는 共通된 理念속에서 폐회되었다.

이번 集談會에 參席하여 나 자신이 느낀것은 이제까지 여러번 日本學會에 參席하여 받은 그것보다 훨씬 親密感을 가졌으며 여러모로 劣等感속에서 헤매던 나의 가슴에 새로운 覺悟와 앞으로의 새로운 힘이 약동하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번 集談會를 주관한 日本京都工場保健會 診療所長이신 乾(이누이)先生任의 物心兩面에 이르는 세심한 配慮에 對하여 우리들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第3次 學術集談會를 韓國에서 開催함에 있어 韓日兩國의 産業保健의 發展과 勤勞者 健康管理가 兩國의 國益에 미치는 問題들을 진지하게 討議하여 2,000년대의 産業醫學의 方向設定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閉會했다.

◻協會消息◻

大韓産業保健協會事務局長會議開催

85년 4월 26일 당협회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최병수 업무이사 주재로 85년도 제3차 사무국장회의가 개최되었는바 동회의에서 최병수이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전직원의 자질향상과 대민봉사 자세의 확립 및 전직원의 일체감 조성으로 85년도 사업을 성공적

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고 기타 주요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토의사항

1. 85년도 사업목표 조기달성
2. 지부별 사업실적 중간분석평가 제도화
3. 본부집중관리체제확립을 위한 제도 재정비
4. 보건관리대행사업에 역점
5. 협회발전을 위한 인사관리 및 업무쇄신방안 강구
6. 각지부 회원관리사업의 활성화

※ 참고사항

산업보건소식(협회회보)을 보완하고 편집내용도 각계 각층의 원고로 충당코져 하니 각지부는 매월 15일까지 회원동정 및 기타산업보건현장사례(사진동봉)를 송부 바랍니다.

